

한국인의 미의식과 우리 회화의 독창성

《한국 회화의 이해》 펴낸 안휘준 교수

한국회화사의 아킬레스건은 중국의 영향문제다. 우리 회화를 중국의 아류로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안휘준 교수의 《한국회화의 이해》는 이같은 주장을 논박한 역저다. 안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 회화가 삼국시대부터 독자적 화풍을 이룬 사실을 입증하고 우리 민족의 독특한 미의식의 실체를 찾아냈다.

안휘준 교수(60,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가 펴낸 《한국 회화의 이해》(시공사)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우리 회화의 역사를 통관하고 있는 저작이다. 우리 회화를 시대별로 나눠 엮은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회화의 발달 과정과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독자적 화풍 이뤘

우리 회화의 역사는 1천6백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의 안악3호분 벽화가 그 출발점인데, 붓·벼루·먹·종이(비단, 벽 등)와 같은 문방사우로 그린 그림인 것으로 볼 때 그 이전부터 우리 회화가 발전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자료가 없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미술사도 역사학의 일부입니다. 사료에 의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상화의 기원 역시 고려시대로 잡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아좌대자가 일본으로 건너가 <쇼토쿠대자급이왕자상>을 그렸다고 전합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은 그 시대에 이미 감상화적 성격을 띤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지만 이것 역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추측만 해볼 따름입니다.”

우리 회화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 크게 발전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 마침내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된다. 우리 회화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술사가들이 문제삼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다. 우리 회화는 중국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고 중국의 아류일 뿐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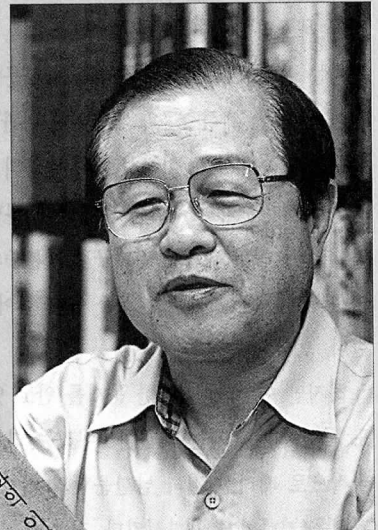
“겸재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그린 18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한국화가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식민사관의 영향인데,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회화는 삼국시대부터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했고, 그 시대부터 이미 일본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안교수는 우리 민족의 영향 없이 일본 회화가 발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의 화공들이 도입해 화사씨족을 형성하면서 일본 미술의 기틀을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한국화가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우리 회화에 나타난 유교미학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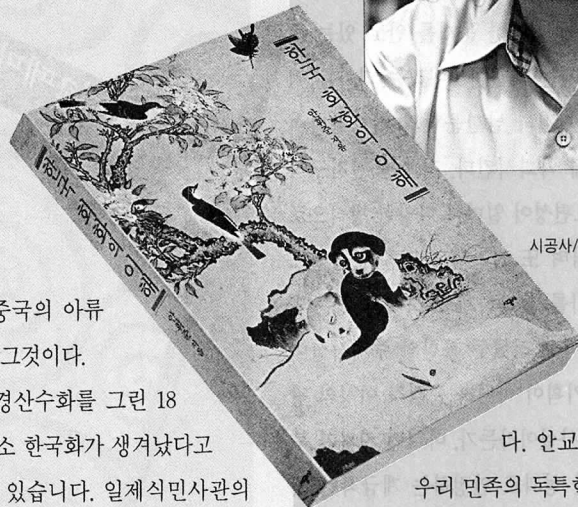
“일제시대, 일본인 심사위원에게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일본풍의 채색화를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화단에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일본의 안료(顔料)를 쓴다는 점입니다. 그림에서는 색채가 제일 중요한데, 일본의 안료를 쓰다보니 일본풍의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회화는 삼국시대부터 나름대로 풍부한 채색성을 띠고 있었다고 안교수는 주장한다. 화려한 색채를 사용한 삼국시대의 벽화와 고려시대의 불화, 조선시대의 민화 등이 그 사실을 잘 말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처럼 채



안휘준 교수

시공사/A5변형/416면/18,000원



색화를 즐겨 그리지는 않았다. 안교수는 그 이유를 우리 민족의 독특한 미의식과 유교미학의 영향이라고 풀이한다.

“다산 정약용이 ‘선비방에는 진하고 요란한 것을 들이지 마라’고 말한 것에서도 유교미학의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은 백자를 사용했지만, 세자는 색깔이 들어간 청와백자를 사용했죠. 조선의 대표화가들도 수묵에 담채를 곁들이는 정도였습니다.”

안교수가 이 책에서 특별히 주목한 것은 초상화다. 그 가운데 조선중기의 초상화를 최고로 친다. 이 시기 우리의 초상화는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초상화는 개인의 외모를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사(被寫)인물의 눈동자를 통해 그 인물의 성격과 인품, 교양 등 정신세계까지 담아내려 했습니다. 물론, 피사인물을 털끝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묘사해내는 실력도 으뜸입니다.”

안교수의 우리 회화 탐구는 계속된다. 그는 올해 회화를 제외한 미술과 문화에 관한 글을 묶은 《한국 미술과 문화》를 펴낼 예정인데, 이 책과 함께 논문집 《한국회화사연구》와 《미대생을 위한 한국 미술사》 등도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 최갑수 기자